

분황 원효 『화엄경소』 발표문

불교학과 오일(김종민)

- I. 세계 철학사에서 분황 원효의 지위
- II. 동아시아불교사상사에서 분황 원효의 위상
- III. 분황 원효에게서 『화엄경소』의 의미와 가치
- IV. 『화엄경소』의 원문과 번역과 주석
- V. 『화엄경소』의 내용과 분석
- VI. 『화엄경소』의 특징과 영향

I. 세계 철학사에서 분황 원효의 지위

한국의 승려로서 그리고 불교학도로서, 오늘날 서양철학 중심으로 서술되어 온 세계 철학사에서 7세기 신라 불교인 원효를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분황 원효는 한국불교사상사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표적 사상가이다. 그 근거는 원효의 사유의 흔적이 담겨있는 방대한 저술들¹⁾이다. 비록 상당 부분 소실되어 일부만 접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당시 중국 불교계의 주요 쟁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최신 교학 성과들을 폭넓게 수용하며 자신만의 독창적 사유를 드러내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부터 중국에 이르러 지속되었던 공유(空有) 논쟁을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의 틀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마음의 근원이자 만물의 근거인 ‘일심(一心)’으로 아울러 녹여낸 점은 그의 사상사적 의의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또한 원효는 특정 종파나 하나의 경전을 절대시하지 않았다. 수많은 경전과 교설들을 접하면서도 그 판단은 공정하며 저마다의 가치를 긍정, 그러니까 경전 각각의 구경의 요의가 있다는 주장한 점은 훗날 그를 ‘화쟁국사(和諍國師)²⁾’로 기억하게 하였고, 이러한 그의 태도에서 한국불교의 ‘통(通)불교’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가 경전을 연구하고 저술한 한 주석가는 아니다. 『발심수행장』을 통해 치열한 구도정신과 계율관을 엿볼 수 있으며, 해골물 사건 정도로 대중에게는 회자되지만, 실제 현장의 신유학을 배우기 위해 올랐던 중국 유학길 도중 무덤가에서 동티를 겪으며, ‘일심’을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후 저술에는 그 깨달음이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다. 특히 『금강삼매경론』에서는 대승불교의 주요 주제를 다루면서, ‘일미관행(一味觀行)’이라는 키워드로 교와 선, 이론과 실천이 둘이 아니라는 살림살이를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말년에 이르러 그의 사상적 귀결을 보여주는

1) 103종 내지 105종(+시 2편) 202권(+권수 미상 6종) 내지 208권(+권수 미상 6종). 그러나 이들 저술들 중에서도 중복 서명과 진찬 여부 및 가탁설이 제기되고 있어 원효 저술의 종수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고영섭, p.28)

2) 고려 숙종대 추존되고 1101년 입비를 명하였으며, 명종대(재위1171~1197) 분황사에 화쟁국사비가 건립되었다. 비는 정유재란(1597)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저술인 『화엄경소』를 짓는 도중 화엄에서, 대중교화에 동력이 되는 ‘무애(無碍)’를 추출한다. 교화의 방법으로서 정토신앙과 염불 수행을 신라인에게 널리 보급하여 그것이 오늘날 한국불교의 수행과 신행 전통 속에 남아있다.

이렇듯 원효는 교학과 수행, 엘리트불교와 대중불교를 아우른 한국 사상사의 독보적 존재이다. 더욱이 그의 사상은 신라에 머물지 않았다. 당에 유학한 적이 없음에도 그의 저술이 중국과 일본 화엄교학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십문화쟁론』은 인도에까지 전해지며 범어로 번역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지속적인 필사와 간행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승되었다. 현존 원효 저술의 일부 일본에서 전래된 사실은 그의 사상이 이미 동아시아 불교계의 공통 자산으로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원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의 사상적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 불교학계에서는 원효를 대상으로 한 학위 및 연구논문이 수백 편에 이를 정도로 연구가 축적되었지만, 철학계와 인문학 일반에서 아직 그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중에게 원효는 여전히 ‘해골물’이나 ‘요석공주’ 에피소드 정도만을 연상할 것이다. 학계가 축적한 연구성과와 사회적 인식 사이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원효의 위대함은 아는 사람만 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데 있다.

그럼에도 동국대 세계불교학 연구소 및 한국불교사 연구소(소장 고영섭)에서는 지금까지 축적한 원효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사상계와 적극적으로 그 접점과 통로를 찾고 있으며, 대중과 사회에 원효사상의 보편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전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II. 동아시아불교사상사에서 분황 원효의 위상

원효에게는 다양한 이칭이 있다. 서당(誓幢), 원효(元曉), 새부(塞部), 시단(始旦), 소성거사(小性/姓居士), 원효거사(元曉居士), 구룡(靑丘潛龍), 구룡대사(丘龍大師), 해동법사(海東法師), 고선대사(高仙大師), 원효성사(元曉大師), 해동(海東), 해동교주(海東教主), 원효보살, 초지보살(初地菩薩), 화엄지(華嚴地)의 대권보살(大權菩薩), 진나보살(陳那菩薩)의 후신, 성종성(聖種性)의 대종사(大宗師), 화회(和會), 화쟁국사(和諍國師) 등.³⁾

1. 역사적 개관

1) 중국

중국에서는 흔히 원효를 해동(海東), 혹은 해동법사라고 불렀다. 해동은 예전 우리나라에 대한 별칭의 하나다. 원효를 해동이라고 칭한 것은 해동의 불교계를 대표할 만한 고승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법장의 제자인 8세기 당의 혜원은 자국에서는 원효를 해동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불세출의 위인으로 찬양했다.⁴⁾

『화엄경소』에 의해 제시된 4교판이 법장의 『탐현기』에 의해 인용되었다. 이후 중국 화엄학 자들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 『기신론소』는 법장소와 혜원소와 함께 『대승기신론』의 3

3) 고영섭, [원효에게 길을 묻다] 4. 원효사상이 아시아에 미친 영향, 법보신문, 2017.01.03. 기사

4) 김상현, 『역사로 읽는 원효』, 고려원, 1994. p.290.

대소로 일컬어진다. 『판비량론』을 당의 학승들이 읽고는, ‘진나의 후신’이라며 동쪽에 위치한 신라를 향해 세 번 절했다고 한다. 진나는 인도 5세기를 대표하는 인명학자이다. 송대까지 그의 영향력은 확인된다. 찬녕은 『송고승전』을 지어 그를 ‘만인지적’으로 치켜세웠다.

2) 한국

1차 유학길과 마찬가지로 8세 연하 의상과 동행한 2차 유학길 도중 ‘일심’을 깨치고 뜻하는 바가 있어 환속하여 거사가 되었다. 거사가 된데에는 자신의 불교적 이상, ‘귀일심원 요익중생’을 실현하는 데 필요했던 일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제도적 의미에서 승가 외부의 존재가 되었고, 원효의 사상과 행적 등을 계승 보존할 조직이 없었던 탓에 사후 그의 존재감은 희미해져 갔다는 것이다. 의상의 경우 귀국 이후 경주와는 먼 곳인 태백산에 주로 있었으나 절을 세우고 신앙적 활동과 후학 양성에 전념하여 문도가 형성되었기에 해동화엄의 초조의 위치가 될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 들어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재인식되며, 속종대 화쟁국사로 추존된다. 명종의 명으로 화쟁국사비가 분황사에 세워졌다. 또한 그의 유품을 기리는 분황종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는 그 출발과 함께 고강도 역불정책을 시행하면서 원효 인식이 퇴보하는 와중에 조선 초 간행된 『동문선』에는 원효가 지은 서문 6종이 수록되어있다. 또 김시습이 그의 화쟁국사비를 보고 시를 지었다. 16세기 말 선조는 원효를 고려의 승려로 여겨, 지배계급의 원효 이해가 전무했음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편찬된 불교 사서에서 원효의 불교사적 위치는 산성(散聖)으로 밀려났다. 그럼에도 창건주로 원효를 내세우는 사찰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⁵⁾

20세기 들어 국내학자들에게 의해 조명받기 시작하여 조명기, 이기영, 고익진, 김상현, 근래에 고영섭에 이르고 있는데, 원효 연구는 네 시기⁶⁾로 볼 수 있다.

한국불교 강원교과목에는 『발심수행장』과 『기신론소』가 포함되어있다

3) 일본

설중엽은 설총의 아들로 원효의 현손이다. 『삼국사기』에는 그가 신라의 사신으로 혜공왕 15년(779) 10월 일본에 갔을 때, 이듬해 정월 일왕을 예방하여 상제가 원효를 찬양하는 시를 썼다는 기록이 있다.

5) 남동신, p.27.

6) 제1기(1914~1945) : 일제식민기 일본으로부터 이식된 근대 불교학에 입각하여 한일 학자들이 원효 연구를 시작. 근대적인 원효상이 구축됨.

제2기(1945~1970) :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 학문 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1960년 4·19혁명을 계기로 민족적 위인 원효를 재조명하기 시작.

제3기(197~80년대) : 현존하는 원효 저술의 초별 한역이 이루어짐으로써 연구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억압적인 분단체제하에서 사회통합과 남북통일의 이념 모색과 관련하여 원효의 화쟁사상이 집중적으로 부각.

제4기(1990년대~) : 원효 연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연구 주제와 연구 분야가 다변화됨.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단행본이 출간되고 원효 저술에 대한 심화된 역주가 이루어짐. (남동신, p.28.)

세상에 전하기를 일본국 진인이 신라 사신 설판관에게 준 시서에, '일찍이 원효거사가 저술한 『금강삼매경론』을 읽고서,

가마쿠라시대 일본 화엄종은 묘예와 교넨으로 대표되는데, 묘예는 고잔지계로 학문에, 교넨은 도다이계로 실천에 힘썼다고 한다. 둘은 모두 원효를 흠모하였다.

현존하는 원효의 저서 중에는 국내에서는 소실되었지만 필사본으로서 일본에만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국내에 유학을 온 경우들이 있다. 후지 요시나리는 원효의 정토문헌을 주로 연구하였다.

2. 사상사적 의미

원효의 불교사적 위치라면, 구역 불교의 중요 인물들이었던 수 3대 법사⁷⁾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대승기신론』의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그들과는 달리 '마명 찬술, 진제 한역'을 적극적으로 표방하였다. 『대승기신론』을 강조한 데에는, 현장 이래 신역 불교 출현으로 촉발된 산·구역 불교의 갈등을 교리적으로 극복하는 데 있었다. 『대승기신론』을 통하여 교리적 갈등을 화쟁시켰기 때문에 이후 법장이 원효의 성과를 토대로 화엄 중심으로 동아시아 불교학을 집대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⁸⁾ 원효의 사상사적 의의는 인도와 중국에서 전개된 다양한 교학 전통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새로운 철학 체계로 재구성함으로써 동아시아 불교의 독자적인 사상 전통을 형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원효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의 전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철학자로 평가할 수 있다.

Ⅲ. 분황 원효에게서 『화엄경소』의 의미와 가치

『화엄경소』는 원효 최후작이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확정할 수는 없다. 어쨌든 만년작⁹⁾으로서 화엄이 그 사상적 편력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 권4 '원효불기' 기사에 따르면, 분황사¹⁰⁾에서 『화엄경소』를 짓다가 권4 「십회향품」에 이르러 붓을 놓았다고 한다. '십회향품'은 60권 『화엄경』에서 권14부터 권22에 걸쳐 설해진 것으로, 전체 경전의 1/4 내지 1/3 지점에 해당하여, 8권에서 절필했으므로 끝까지 집필을 할 경우 완성본은 20권 분량이 된다. 다른 저술이 1~3권인 것에 비해 이례적으로, 필생

7) 지론학의 혜원, 천태학의 지의, 삼론학의 길장 등

8) 남동신, 『원효의 발견』,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p.363~366.

9) 『삼국유사』에서는 원효가 분황사에서 『화엄경소』의 집필 중 「십회향품」에 이르러 절필했기 때문에 최후작으로 보기도 하지만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저술에 착수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후작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4교판에 시설된 화엄의 지위를 고려해 볼 때 만년작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영섭, p.17.) 고영섭은 이 글에서 원효 저술의 순서를 『초장관문』→『안신사심론』→『대승기신론별기』→『일도장』→『중변분별론소』→『이장의』→『본업경소』→『능가경요간』→『능가경중요』→『능가경소』→『무량수경중요』→『금광명경소』→『판비랑론』(671)→『열반경중요』→『대승기신론소』→『금강삼매경론』→『화엄경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0) 분황사와 원효와의 인연은 각별하다. 『화엄경소』를 저술한 곳이면서 그의 사후 소상을 봉안했던 장소이기도 하며 고려 명종 때에는 분황사에 화쟁국사비를 세워 원효의 행적을 기리기도 하였다. 훗날 원효의 유품을 기리고자 했던 종파를 분황종(芬皇宗)이라고 부른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김상현의 책, p.235.)

의 역작을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십회향품’은 경전 전반부에서 거듭 이야기한 자리행과 이타행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함으로써, 깨달음으로 나아감을 설법하고 있다. 중생제도를 강조하는 이 단계를 십회향위라고 하는데, 보살52위 중 제31에서 제40위까지이다. 원효의 수행단계가 초지(初地)라는 데에는 자타가 공인하였는데, 초지는 십회향위의 바로 다음인 제41위이다. 그렇다면 절필에 이유를 중생제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일연은 그 점을 강조했을 것이다.¹¹⁾

무덤에서의 일심을 깨침이 제1차 개인적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분황사에서 『화엄경소』를 짓다 절필을 함은 제2차 사회적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서권기와 문자향이 가득 찬 골방 안에서는 온전한 회향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곧바로 붓을 꺾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¹²⁾

IV. 『화엄경소』의 원문과 번역과 주석

晉譯華嚴經疏 序¹³⁾

原夫無障無碍法界法門者。無法而無不法。非門而無不門也。爾乃非大非小。非促非奢。不動不靜。不一不多。

아무런 걸림이 없는 법계의 법문이란 법이 없으면서도 법이 아님도 없고 문이 아니면서도 문이 아님도 없다. 그래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으며, 움직이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으며, 하나이지도 않고 여럿이지도 않다.

由非大故作極微而無遺(유)。以非小故爲大虛而有餘。非促之故能含三世劫¹⁴⁾波。非奢之故舉(거)體入一刹。不動不靜故生死爲涅槃。涅槃爲生死。不一不多故一法是一切法。一切法是一法。

크지 않기 때문에 극미가 되고도 남음이 없고, 작지 않기 때문에 태허가 되고도 남는다. 빠르지 않으므로 삼세의 겁을 품을 수 있고, 느리지 않으므로 전체가 한 찰나에 들어간다. 움직이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으므로 생사가 열반이 되고 열반이 생사가 된다. 하나이지도 않고 여럿이지도 않으므로 한 법이 모든 법이고 모든 법이 한 법이다.

如是無障無礙之法。乃作法界法門之術。諸大菩薩之所入也。三世諸佛之所出也。二乘四果之聾盲。凡夫下士之所笑驚。若人得入是法門法¹⁵⁾。卽能不過一念普現無邊三世。復以十方世界。咸入一微塵內。斯等道術。豈可思議。

11) 남동신, p296.

12) 고영섭, 『원효탐색』, 연기사, 2001; 2005; 2010.

13) 『화엄경소 권삼 병서』 晉譯華嚴經疏序(ABC, H0007 v1, p.495a01)

14) 『東文選』에는 ‘劫’으로 되어 있다.

15) 『東文選』에는 ‘者’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아무런 걸림이 없는 법으로 법계 법문의 도술(道術)을 만드니, 모든 대보살이 들어가는 곳이고 삼세제불이 나오는 곳이다. 이승(二乘)과 사과(四果)는 귀먹고 눈멀며, 범부와 하사(下士)는 비웃고 놀란다. 이 법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순간이 지나기 전에 무한한 삼세를 두루 나타낼 수 있고, 시방세계를 작은 티끌 하나 안에 모두 넣을 수 있으니, 이러한 도술을 어떻게 생각해 낼 수 있겠는가.

然依彼門。用看此事。猶是一日三出門外。十人共坐堂內。徑然之域。有何奇特。況乎須彌入於芥子者。稊來入於大倉也。方丈內乎衆座者。宇宙內於萬物也。內入甚寬(寬)。何足爲難乎哉。

그러나 저 법문에 의지하여 세상일을 본다면, ‘하루에 세 번 문밖을 나가고 열 사람이 함께 방 안에 앉는 것’과 같으니, 쉽게 하는 것에 무슨 기이하고 특별함이 있겠는가. 더욱이 수미산이 겨자씨로 들어가는 것은 돌피가 커다란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며, 방장이 여러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주가 만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받아들이고 들어가는 일이 매우 거리낌이 없는데 어찌 어려울 수 있겠는가.

若乃鳳皇翔于青雲。下觀山岳之卑(卑)。河伯屈乎大海。顧羞川河之狹。學者入乎此經普門。方知會學之齷齪也。然短翮之鳥。庇山林而養形。微之魚。潛涓流而安性。所以淺近教門。亦不可已之耳。

봉황이 푸른 구름까지 날아오르면 산악의 나직함을 내려다보고, 하백이 큰 바다에 이르면 하천의 좁음을 되돌아 부끄럽게 여기는 것처럼, 배우는 이가 이 경의 ‘보문(普門)’에 들어오면 비로소 [그 이전] 배운 것의 편협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날개가] 짧은 새는 산림에 의지하여 형체를 기르고, 작은 물고기는 시냇물에 잠겨서 본성을 편안히 하니, 이런 까닭에 얕고 친근한 교문(教門)도 그만둘 수 없을 뿐이다.

今是經者。斯乃圓滿無上頓教法輪。廣開法界法門。顯示無邊行德。行德無畏而示之階。階故可以造修矣。法門無涯(涯)開之的。的故可以進趨(趨)矣。

지금 이 경은 바로 원만하고 위없는 돈교(頓教)법륜으로 법계의 법문을 널리 펼쳐 끝없는 행덕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행덕에는 두려울 것이 없지만 그것을 드러내 보여 단계를 밟게 하였으니 단계를 밟기 때문에 닦아 나아갈 수 있으며, 법문에는 끝이 없지만 그것을 펼쳐 표적을 삼게 하였으니 표적을 삼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趨入彼門者。卽無所入故無所不入也。修行此德者。卽無所得故無所不得也。於是三賢十聖。無行而不圓。三身十佛。無德而不備。其文郁郁。其義蕩蕩。豈可得而稱焉。

저 문에 나아가 들어간 자는 곧 들어갈 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도 없으며, 이 덕을 수행한 자는 곧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얻지 않을 것도 없다. 이에 ‘삼현(三賢)’과 ‘십성

(十聖)’의 어느 행이나 원만하지 않음이 없고, ‘삼신(三身)’과 ‘십불(十佛)’의 어느 덕이나 갖추어져 있지 않음이 없다. [이 경의] 그 문장은 빛나고 빛나며 그 의미는 넓고 넓으니, 어찌 이루어 다 말할 수 있겠는가.

所言大方廣佛華嚴者。法界無限大方廣也。行德無邊佛華嚴也。非大方無以廣佛華。非佛華無以嚴大方。所以雙舉方華之事。表其廣嚴之宗。

‘대방광불화엄(大方廣佛華嚴)’이란, 법계가 무한함이 ‘대방광’이며 행덕이 무변함이 ‘불화엄’이다. 대방(大方)이 아니면 불화(佛華)를 넓힐[廣] 수 없고, 불화(佛華)가 아니면 대방(大方)을 장엄[嚴]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쌍으로 방(方)과 화(華)의 일을 들어 그 광(廣)과 엄(嚴)의 뜻[宗]을 나타내었다.

所言經者。圓滿法輪。周聞十方無餘世界。遍轉三世無際有情。極軌窮常。故名曰徑¹⁶⁾舉是大意以標題目。故言道大方廣佛華嚴經也。

‘경(經)’이란 원만한 법륜이 [공간적으로] 시방의 남음 없는 세계에까지 두루 들리고 [시간적으로] 삼세의 경계 없는 유정에게까지 널리 퍼져, 궁극의 변함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경이라고 하였다. 이런 대의를 들어 제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대방광불화엄경’이라고 말하였다.

花嚴經疏卷第三 如來光明覺品

[第一大意]

此中如來放光普照十方。令諸大衆除滅闇障。覺如來身周遍法界。以之故言光明覺品。

여기에서는 여래가 빛을 발하여 시방을 두루 비추어 모든 대중의 어둡고 막힌 장애를 없애고, 여래의 몸이 법계에 널리 퍼져 있음을 깨닫게 하므로 ‘광명각품(光明覺品)’이라고 하였다.

是答二問。義如前說。又此佛光滅諸疑惑拔衆災難。由是義故答彼二句更起云位。

이것은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이다. 그 뜻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또한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빛이 모든 의혹을 없애고 온갖 재난을 뽑아내니, 이런 의미에서 두 구절에 답하는 것이 다시 원래 자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信心分內有二之中。舉所得果。起願樂心。既於前。此下第二。不所修行生進趣意。

신심(信心) 부분¹⁷⁾ 안에 두 가지가 있는 중에 [첫째인] ‘얻는 과보를 거론하여 즐거워하는

16) ‘경’의 오자로 보인다.

17) 7처 8회 34품으로 이해하는 60권 『華嚴經』의 구성에서 제2회 보광법당회(普光法堂會)의 설법 내용은 신심이다.

마음을 발원하게 함'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고], 이하 둘째, '수행하지 않은 이가 나아가려는 의지를 생기게 함'이다.

此中四品。科爲二分。謂前二品。遣諸疑難以生信解。其後二品。正說行德而令進修。

여기의 네 품을 분류하면 두 부분이 된다. 앞의 두 품¹⁸⁾은 여러 의문과 질문을 떨쳐 내서 신해(信解)를 생기게 하는 것이고, 그 뒤의 두 품¹⁹⁾은 행덕(行德)을 바로 설해서 수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初中亦二。初品遣疑。次品通難。通難者。於法難解生諸難故。遣疑者。於佛未信起諸疑故。

앞에도 둘이 있는데, 첫 품(「여래광명각품」)은 의문을 제거하고, 그 다음 품(「보살명난품」)은 질문을 풀어 준다. 질문을 풀어 주는 것은 법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여러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고, 의문을 제거하는 것은 부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 의문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此疑因何而得起者。前二品說。佛號諦名遍布十方一切世界。於是疑言。爲佛身遍故名聲隨遍耶。爲身局世此唯名聲遍耶。

이런 의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앞의 두 품(「여래명호품」, 「사성제품」)에서 부처님의 명호와 사제의 명칭이 시방의 일체 세계에 두루 퍼져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의문의 말을 한다. 부처님의 몸이 두루하기 때문에 이름이 그를 따라서 두루한 것인가? 몸은 이 세계에 국한되고 이름만 두루한 것인가?

若唯名聲遍而身不遍者。如何身業之報狹。口業之果寬。

이름만 두루하고 몸은 두루하지 않다면 어째서 신업의 과보는 좁고 구업의 과보는 넓은가?

本修二業皆無量故。若如名遍身亦遍者。何故但見佛世此會。爲遣是疑故此品來。大意如是。

본래 두 가지 업을 닦는 것 모두 한량이 없어서 이름이 두루하고 몸도 두루하다면 어째서 부처님의 세계가 이 법회에만 있음을 보는가? 이런 의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품이 온 것이다. 대의는 이와 같다.

次釋其文 文中有二。先明光從出處。後顯光所照處。

다음으로 본문을 해석한다. 본문에는 두 부분이 있다. 앞에서는 빛이 나오는 곳을 밝혔고,

18) 제5 「如來光明覺品」과 제6 「菩薩明難品」

19) 제7 「淨行品」과 제8 「賢首菩薩品」

뒤에서는 빛이 비추는 곳을 드러냈다.

[第一光從出處] 제1 빛이 나오는 곳

初中言從兩足相輪放百億光明。相輪即是千輻輪相爲表信行。始發起者。初起十心增至百千。止觀雙運。入賢首位故。從兩足相輪而出也。

첫 부분에 “두 발의 상륜에서 백억의 광명을 뿜어낸다.”고 하였다. 상륜은 천 개의 바퀴살 무늬인데 신행(信行)을 나타낸다. 처음 [믿음을] 일으킨 자는 우선 열 가지 마음을 일으키고 점점 백천에 이르며 지관(止觀)을 함께 닦아 현수[보살]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발의 상륜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다.

[第二光所照處] 제2 빛이 비추는 곳

遍照以下光所照處。從近至遠十重漸增。表所爲始發趣者漸修增進必滿位。此中正顯佛身遍然。所以身口二業果報。皆同無邊等周法界。

“두루 비추다.” 이하는 빛이 비추는 곳이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열 단계에 걸쳐 반복하여 점차 늘어나는 것은 처음 [수행에] 나아간 이가 점차 닦아 나가 진전이 있고 반드시 계위를 완성할 것임을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몸이 두루하여서 신업과 구업 두 가지 업의 과보도 모두 끝이 없으며 법계에 똑같이 두루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1) 유수(문수)보살의 법문 :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비치

就第一重卽有二分。先序光所照處所見之事。後明濡首菩薩說偈讚佛。

[열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두 가지 구분이 있다. 앞에서는 ‘빛이 비치는 곳과 [그 곳에서] 보이는 일을 차례로 설명’했고, 뒤에서는 ‘유수보살이 계송을 설하여 부처를 찬탄하는 것’을 밝혔다.

初中亦二。先顯光照百億世界。後明普見佛及大衆。後之九重科文亦爾。讚佛中亦有二。先明一處。後例餘處。

처음 [빛이 비치는 곳] 부분에도 둘이 있다. 앞에서는 ‘빛이 백억 세계까지 비치는 것’을 나타냈고, 뒤에서는 [그 세계에서] ‘두루 만나는 부처와 대중’을 밝혔다. 이후 아홉 단계도 글을 나누면 이와 같다. [유수보살이] 부처를 찬탄하는 부분에도 둘이 있다. 앞에서는 한 곳을 밝히고, 뒤에서는 나머지 곳을 이 예에 따랐다

頌中有二也。前二頌依東方佛號。讚佛不動相。後之八頌寄濡首菩薩名。顯無住無得智。

[첫 번째 대목의] 계송에 두 부분이 있다. 앞의 두 계송은 동방 부처님 명호에 의지하여, ‘부처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佛不動相)을 찬탄’하였고, 뒤의 여덟 계송은 유수보살의 이름에 기대어, ‘머물 것 없고 얻을 것 없는 지혜(無住無得智)를 드러냈다.’

初中亦二。初頌反顯。後頌順明。反顯義者。若知如來脫縛離滿。則謂如來有動有出。既有所得非淨眼故。順明義者。若知如來觀一切法皆無所有。則順如來不動之智。既非有住疾作佛故。

앞의 두 계송에 또 둘이 있다. 첫 계송²⁰⁾은 반대로 드러낸 것[反顯]이고, 뒤의 계송²¹⁾은 그대로 밝힌 것[順明]이다. 반대로 드러낸 것의 의미는, 여래가 속박을 풀고 벗어났다고 아는 것은 여래에게 움직임이나 출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어서 유소득(有所得)이고 청정한 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로 밝힌 [계송의] 의미는, 여래가 일체법이 모두 무소유라고 관찰한다고 아는 것은 여래의 부동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어서 유주(有住)가 아니고 곧바로 부처가 되기 때문이다.

後八頌中卽有四雙。第一雙中初頌達俗無實。次頌入眞無二。第二雙者先明於人無住。後顯於法久得。第三²²⁾雙者先明於法離有無。後顯於佛無減增。第四離雙者先明人法無所得門轉化衆生。後顯一多無障礙門得無所畏。

뒤의 여덟 계송에는 네 쌍이 있다. 첫째 쌍 중 첫 계송²³⁾은 세속에는 진실함이 없음을 통달함이고, 다음 계송²⁴⁾은 진실한 무이(無二)에 들어감이다.

둘째 쌍의 앞 계송²⁵⁾은 사람에 대하여 머무름이 없음을 밝혔고, 뒤의 계송²⁶⁾은 법에 대하여 오래전에 얻었음을 드러냈다.

셋째 쌍의 앞 계송²⁷⁾은 법이 있음과 없음에서 벗어나 있음을 밝혔고, 뒤의 계송²⁸⁾은 부처에게

20)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若有知正覺， 解脫離諸漏，不著一切世， 彼非淨道眼。」 (T9, p.422c12-13) “만일 누구나 바른 깨달음 알고 해탈하여 모든 번뇌를 떠나 어떤 세간에도 집착 없으면 그는 깨끗한 도의 눈이 아니네.”

21)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若有知如來， 觀察無所有，知法散滅相， 彼人疾作佛。」 (T9, p.422c14-15) “만일 누구나 여래를 알되 아무것도 없다고 잘 관찰하고 법이란 없어지는 것임을 알면 그 사람은 빨리 부처 이루리.”

22)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能見此世界， 一切處無著，如來身亦然， 是人疾成佛。」 (T9,p.422c16-17) “이 세계를 잘 관찰하여 아무 데에도 집착이 없고 여래의 몸도 그런 줄 알면 그 사람은 빨리 부처 이루리.”

24)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若於佛法中， 其心隨平等，入不二法門， 彼人難思議。」 (T9, p.422c18-19) “만일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그 마음이 언제나 평등하여 둘이 아닌 법문에 잘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사의(思議)하기 어렵네.”

25)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若見我及佛， 安住平等相，彼住無所住， 遠離一切有。」 (T9, p.422c20-21), “만일 누구나 나와 부처가 평등한 모양에 머무름 보면 그는 머무름 없는 곳에 머물러 일체의 존재에서 멀리 떠나리.”

26)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色受無有數， 想行識亦然，能如是知者， 彼是大牟尼。」 (T9, p.422c22-23), “이 색(色)과 수(受)에 차별이 없고 상(想)·행(行)·식(識)도 그러하니 만일 누구나 그런 줄 알면 그이는 바로 큰 모니[大牟尼]네.”

27)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見者無所有， 所見法亦無，明了一切法， 彼能照世間。」

는 늘 것도 줄 것도 없음을 드러냈다.

넷째 쌍의 앞 계송²⁹⁾은 사람과 법에 대해 얻을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 중생을 교화함을 밝혔고, 뒤의 계송³⁰⁾은 하나와 여럿이 걸림이 없다는 입장에서 두려워함이 없게 됨을 드러냈다.

一切法入一法故一中解無量。一法入一切法故無量中解一也。所以能得互相入者。展轉互爲鏡影而生。非實而生故無障礙。是謂濡首菩薩法門。

일체법이 하나의 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에서 무량을 이해하고, 하나의 법이 일체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량에서 하나를 이해한다. 그러므로 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서로 거울과 [거기에] 비친 그림자가 되어 생기는 것이지 실체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 이것이 [첫번째] 유수보살의 법문이다.

2) 각수보살의 법문 : 십불국토에 두루 비침

第二頌中。亦有二分。在前二頌寄南方佛號。歎智惠火法門。後之八頌依彼菩薩名。顯覺首法門。

두 번째 대목의 계송도 두 가지 구분이 있다. 앞의 두 계송은 남방 부처님 명호에 기대어, ‘지혜의 불’(智惠火)의 법문을 찬탄하였고, 뒤의 여덟 계송은 그 [두 번째인 각수]보살의 이름에 의지하여 각수(覺首)의 법문을 드러냈다.

初中有二。前之一頌。見諸衆生癡闇。令求無上惠明。後之一頌。內懷不轉智火。外轉無上光輪。

앞[의 두 계송]에 둘이 있다. 앞의 한 계송³¹⁾은 ‘모든 중생이 어리석음과 어둠에 있는 것을 보고 위없는 지혜 광명을 구하게 하고’, 뒤의 한 계송³²⁾은 ‘안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지혜의 불을 품고 밖으로는 위없는 빛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T9, p.422c24-25), “보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요 보이는 법도 그러하나니 모든 법을 그렇게 환히 알면 그 사람은 이 세간을 잘 비추리.”

28)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一念見諸佛，出現于世間，而實無所起，彼人大名稱。」(T9, p.422c26-27),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되 실상인즉 나타나심 전연 없다고 잠깐 동안이나 마 그렇게 알면 그 사람은 위대한 명에 얻으리.”

29)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無我無眾生，亦無有敗壞，若轉如是相，彼則無上人。」(T9, p.422c28-29), “나란 것 없고 중생도 없고 죽는다는 것 또한 없나니 만일 이렇게 그 모양 알면 그는 곧 위없는 사람이 되리.”

30)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一中解無量，無量中解一，展轉生非實，智者無所畏。」(T9, p.423a1-2), “하나 가운데 한량없는 것 알고 한량없는 가운데서 하나를 알아 그것들이 서로서로 내는 줄 알면 지혜로운 그 사람 공포 없으리.”

31)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見眾生苦逼，癡覆愛欲刺，常求無上道，諸佛法如是。」(T9, p.423a16-17), “중생들 우치하여 고통의 찔림 받고 온갖 애욕 가시에 덮여 있는 것 보고 언제나 저 위없는 도 구하시나니 모든 부처님 법이 다 이러하네.”

32)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離斷常二邊，見法實不轉，昔所未曾轉，轉此無上輪。」(T9, p.423a18-19), “단(斷)·상(常)의 두 치우침 모두 버리고 진실한 법을 보아 안 물러나고 일찍이 한 번도 굴리지 않던 위없는 그 법륜을 이제 굴리네.”

後八頌中。亦作四雙。第一雙者。前則弘誓爲首覺生死眠。後則慈悲爲懷降衆魔怨。第二雙者。內得深智覺能害諸煩惱。外擊正法鼓。警覺十方國。第三雙者。下則於一切有而不取著。上則於一切佛而生歎喜念。第四雙者。爲救衆生長却受苦。爲護佛法不惜身命。是爲覺首菩薩自覺覺他法門。

뒤의 여덟 계송은 다시 네 쌍이다.

첫째 쌍에서 앞³³⁾은 커다란 서원을 으뜸으로 삼아 생사의 잠을 깨우고, 뒤³⁴⁾는 자비를 품어 온갖 원수 같은 마군을 항복시킨다.

둘째 쌍³⁵⁾은 안으로는 깊은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 모든 번뇌를 방해하고, 밖으로는 바른 법의 복을 올려 시방 국토를 깨어나게 한다.

셋째 쌍³⁶⁾은 아래로는 모든 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위로는 모든 부처에게 환희의 마음을 낸다.

넷째 쌍³⁷⁾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오랜 겁 동안 괴로움을 받고, 불법 수호를 위해 신명(身命)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이 각수보살의 스스로 깨치고 남도 깨치게 하는 법문이다.

3) 재수보살의 법문 : 백불국토에 두루 비침

第三頌中亦有二分。在前一頌寄西方佛名。歎淨智法行。其後九頌依彼財首菩薩之名。明現種種功德之。則饒益一切衆生法門。初中有二。上半覺淨。下半心淨。是謂淨智法行也。

세 번째 대목의 계송도 두 가지 구분이 있다. 앞의 한 계송³⁸⁾은 서방 부처님 명호에 기대

33)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不可思議劫, 被弘誓德鎧, 爲度生死故, 大聖法如是。」(CBETA 2026.R1, T09, no. 278, p. 423a20-21), “헤아릴 수 없는 오랜 겁 동안 큰 서원과 공덕의 갑옷 입은 것 그것은 나고 죽음 건너기 위함이니 큰 성인의 그 법은 이러하니라.”

34)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導師降衆魔, 勇健莫能勝, 愛語離衆怖, 無上慈悲法。」(CBETA 2026.R1, T09, no. 278, p. 423a22-23), “온갖 악마 항복 받은 큰 도사(導師)는 용맹하고 씩씩해 당할 수 없네. 정다운 그 말씨로 두려움 떠났나니 그것은 위없는 자비의 법이네.”

35)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內得甚深智, 能害諸煩惱, 一念見一切, 彼自在示現。能擊正法鼓, 聲震十方國, 令得無上道, 自覺法如是。」(T9, p.423a24-27), “마음속에 매우 깊은 지혜를 얻어 갖가지 번뇌를 다 깨뜨리고 한 찰나에 모든 것 다 보나니 그것은 신통의 힘 나타남이네. 우렁차게 바른 법의 복을 칠 때 그 소리 시방세계 두루 떨치어 중생들을 위없는 법 얻게 하나니 스스로 깨달은 법 이러하니라.”

36)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不壞無量境, 能遊無數刹, 不取一切有, 彼自在如佛。無比歎喜念, 諸佛常清淨, 虛空等如來, 彼是具足願。」(T9, p.423a28-b2), “부수어지지 않는 한없는 경계 셀 수 없는 세계에 두루 놀면서 어떠한 존재도 안 취하나니 그 자재함 마치 부처님 같네. 모든 부처님들 언제나 청정하고 또 그네들 마치 허공 같나니 다시 비할 데 없는 기쁜 그 마음 그것은 바로 모든 서원 구족함이네.”

37)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一一眾生故, 阿鼻地獄中, 無量劫燒煮, 心淨如最勝。不惜身壽命, 常護諸佛法, 具足行忍辱, 彼得如來法。」(T9, p.423b3-6), “이 모든 중생들 위함으로써 저 아비지옥 속까지 들어가 한량없는 겁 동안 불에 탔건만 그 마음 깨끗하기 부처님 같네. 몸이나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언제나 부처님 법 보호하면서 갖가지의 인욕을 다 행했나니 저들 이제 부처님 법 모두 얻었네.”

어, ‘청정한 지혜(淨智)와 법의 수행을 찬탄’하였고, 그 뒤의 아홉 계송³⁹⁾은 저 [세 번째인] 재수보살의 이름에 의지하여, 갖가지 공덕이 나타남을 밝힌 것이니 이는 곧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법문’이다. 앞(의 계송 하나)에도 둘이 있다. 위의 반⁴⁰⁾은 ‘깨달음의 청정’이고, 아래의 반⁴¹⁾은 ‘마음의 청정’이다. 이것이 청정한 지혜와 법의 수행이다.

4) 보수보살의 법문 : 천불국토에 두루 비침

第四頌中亦有二分。在前九頌寄北方佛號。歎具威德智惠法門。最後一頌依彼寶首菩薩之名。顯如鍊金清淨法門。

네 번째 대목의 계송도 두 가지 구분이 있다. 앞의 아홉 계송은 북방 부처님 명호에 기대어, ‘위엄과 덕을 갖춘 지혜(具威德智惠) 법문을 찬탄’하였고, 마지막의 계송 하나⁴²⁾는 저 보수(寶首)보살의 이름에 의지하여, ‘쇠를 단련하는 것 같은 청정한 법문’을 드러냈다.

初中亦二。在前一頌總標內外威德具足。於中上半內證威德。下之二句外現威德。

처음[의 아홉 계송]에도 두 가지가 있다. 앞의 한 계송⁴³⁾은 ‘안팎으로 위엄과 덕이 모두 갖

38)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如來覺諸法, 如幻如虛空, 心淨無障礙, 調伏群生類。」(T9, p.423b18-19), “여래는 모든 법이 환술과 같고 그것은 또 허공과 같음을 알아 깨끗한 그 마음에 장애가 없어 모든 중생 무리들 조복하시네.”

39)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或見初生時, 妙色如金山, 住是最後身, 照明如滿月。或見經行時, 攝無量功德, 念慧善具足, 明行人師子。或見明淨眼, 觀察照十方, 或時見戲笑, 眾生樂欲故, 或見師子吼, 清淨無比身, 示現末後生, 所說無非實。或見出家時, 解脫一切縛, 修習諸佛行, 常樂觀寂滅。或見坐道場, 善覺一切法, 度諸功德岸, 癡闇煩惱滅。或見天人尊, 具足大悲心, 或見轉法輪, 度脫諸群生, 或見無畏吼, 儀容甚微妙, 調伏一切世, 神力無障礙。或見寂靜心, 世間燈永滅, 或見十力尊, 顯現自在法。」(T9, p.423b20-c8), “혹은 보면 처음으로 태어나실 때 묘한 그 몸 마치 저 금산과 같고 마지막인 그 몸에 머무르실 때환히 비추심은 보름달 같네. 혹은 보면 부처님이 거니실 때에 한량없는 그 공덕 모두 거두고 생각이나 지혜를 두루 갖추어 밝음과 행, 사람중의 사자이시네. 혹은 보면 밝고도 깨끗한 그 눈 시방을 두루 비취 관찰하시고 때로는 장난으로 웃으시나니 중생들의 좋아함을 따르심이네. 혹은 보면 사자후로 외치실 때는 어디 비길 데 없는 청정하신 몸 최후의 그 생(生)임을 보이시면서 하는 말씀 모두 다 진실이시네. 혹은 보면 그 왕궁을 떠나실 때는 일체의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 모든 부처님행 닦아 익히어 항상 즐겨 적멸(寂滅)을 관찰하시네. 혹은 보면 도량에 앉아 계시어 온갖 법을 모두 다 깨달아 알고 공덕의 저 언덕에 오르시나니 어리석고 어두운 번뇌 없었네. 혹은 보면 천상 인간 높은 이로서 대자대비하신 마음 모두 갖추고 혹은 보면 법 바퀴를 잘 굴리어 모든 중생 무리를 구제하시네. 혹은 보면 겁냄 없이 사자후할 때 그 거동과 모습은 매우 미묘해 모든 세간 중생들 조복하시네. 혹은 보면 겁냄 없이 사자후할 때 그 거동과 모습은 매우 미묘해 모든 세간 중생들 조복하시네. 혹은 보면 아무런 걸림이 없네. 혹은 보면 그 마음 고요하시되 이 세상의 등불이 아주 꺼지네. 혹은 보면 열 가지 힘을 가진 분 자재하신 그 법을 나타내시네.

40)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如來覺諸法, 如幻如虛空」(T9, p.423b18), “여래는 모든 법이 환술과 같고 그것은 또 허공과 같음을 알아”

41)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心淨無障礙, 調伏群生類」(T9, p.423b19), “깨끗한 그 마음에 장애가 없어 모든 중생 무리들 조복하시네.”

42)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佛智如鍊金, 一切有非有, 隨其所應化, 為說清淨法」(T9, p. 424a9-10), “부처님의 지혜는 연금(鍊金)과 같아 존재거나 존재 아닌 모든 그것들 교화할 수 있는 중생 그들을 위해 깨끗하고 맑은 법 연설하시네.”

43)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善逝法甚深, 無相亦無有, 眾生顛倒故, 次第現一切。」(T9, p. 423c20-21), “선서(善逝)님 법은 깊고 또 깊어 모양도 없고 또 있는 것도 아닌데 중생들 생각이 뒤바뀌었으므로 차례차례로 모두 나타내 보이네.”

취졌음을 총체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위의 반은 '안으로 위엄과 덕을 증득한 것'이고, 아래의 두 구절은 '밖으로 위엄과 덕을 나타낸 것'이다.

其次八頌別顯四雙威德具足。第一雙者。自覺離塵德。化他普起威。第二雙者。無陰離苦威。內解外脫德。第三雙者。靜而恒動威。動而常寂德。第四雙者。善知甚深德。普見廣度威。

그 다음의 여덟 계송은 네 쌍으로 위엄과 덕이 모두 갖춰졌음을 개별적으로 드러냈다. 첫째 쌍⁴⁴⁾은 스스로 깨달아 번뇌에서 벗어난 덕과 다른 사람을 교화하여 모두 일어나게 한 위엄이다. 둘째 쌍⁴⁵⁾은 [다섯 가지] 덩어리[와 12처와 18계]가 없어 괴로움에서 벗어난 위엄과 안팎으로 해탈한 덕이다. 셋째 쌍⁴⁶⁾은 고요하면서도 항상 움직이는 위엄과 움직이면서도 항상 고요한 덕이다. 넷째 쌍⁴⁷⁾은 깊고 깊음을 잘 아는 덕과 두루 보아 널리 건너게 하는 위엄이다.

5) 덕수보살의 법문 : 만불국토에 두루 비침

第五頌中亦作二分。在前五頌依彼第五德首菩薩。明共自利利他功德。其後五頌寄彼第五明智佛號。歎彼明照不思議境。

제5 계송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앞의 다섯 계송은 다섯 번째 덕수(德首)보살에 의지하여, '스스로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공덕'을 밝혔고, 그 뒤의 다섯 계송은 다섯 번째 명지불(明智佛)의 명호에 기대어, '그 광명이 비치는 불가사의한 경계를 찬탄'하였다.

初中亦二。前之一頌下化群生慈悲之德。其後四頌上求佛道進修之德。後之五頌亦分爲

44)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無有我我所, 彼境界空寂, 善逝身清淨, 自覺離諸塵。等覺明解脫, 無量不可數, 無邊世界中, 因緣和合起」(T9, p.423c22-25), “나도 없고 또 내 것 또한 없으며 저 모든 경계도 비고 고요하나니 선서님의 그 몸은 청정하시고 스스로 깨달아 모든 곳을 떠났네. 평등하게 깨달은 지혜와 해탈 그것은 한량없고 셀 수 없나니 끝이 없는 이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인(因)과 연(緣)이 모이어서 생긴 것이네.”

45)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無諸陰界入, 永離生死苦, 不在世間數, 故號人師子。內外俱解脫, 本來常自空, 一切離虛妄, 諸佛法如是」(T9, p.423c26-29), “오온(五蘊)도 십팔계(十八界)도 육입(六入)도 없고 나고 죽는 괴로움 영원히 떠나 이 세간의 수(數)에는 들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람 중의 사자라 하네. 안이나 밖이 모두 다 해탈하여 본래부터 스스로 항상 공적해 온갖 허망한 것을 다 떠났나니 모든 부처님 법 다 이러하네.”

46)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離愛諸煩惱, 長流永不轉, 正覺解諸法, 度無量眾生。一念不二相, 樂觀寂滅法, 其心無所著, 佛自在無量」(T9, p.424a1-4), “애욕의 온갖 번뇌 모두 떠나고 언제나 계속하는 윤회를 끊고 바른 깨달음으로 모든 법 알아 한량없는 이 중생들 모두 건지네. 한 생각 가운데 두 모양 없어 적멸한 법 즐거이 관찰하면서 그 마음이 아무 데도 집착 않나니 부처님의 자재하심 한량이 없네.”

47)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善知因緣法, 業報及眾生, 最勝無礙智, 甚深難思議。普見十方界, 嚴淨諸佛刹, 如來離虛妄, 度脫無量眾」(T9, p.424a5-8), “갖가지 인연법과 그 업보와 또 중생 세계를 잘 아시나니 부처님의 걸림없는 그 지혜는 매우 깊어 말하거나 생각하기 어렵네. 시방 모든 세계를 두루 보시고 모든 부처 세계를 다 장엄하며 여래는 허망한 것 모두 다 떠나 한량없는 저 중생들 제도하시네.”

二。在前二頌明觀身心實相境界。其後三頌達無量不思議境。

앞[의 다섯 계송]도 두 가지이다. 앞의 한 계송⁴⁸⁾은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는 자비의 덕’이고, 그 뒤의 네 계송⁴⁹⁾은 ‘위로 부처의 도를 구하여 수행하며 나아가는 덕’이다. 뒤의 다섯 계송도 나누면 둘이 된다. 앞의 두 계송⁵⁰⁾은 ‘몸과 마음의 실상의 경계를 밝게’ 보았고, 그 뒤의 세 계송⁵¹⁾은 ‘한량없는 불가사의한 경계를 통달’한 것이다.

6) 목수보살의 법문 : 십만불국토에 두루 비침

第六頌中卽有二分。七言六頌。五言五頌。

제6 계송에는 두 가지 구분이 있다. ‘7언으로 된 계송 여섯’과 ‘5언으로 된 계송 다섯’이다.

七言頌中亦有二分。在前二頌依彼第六目首菩薩。反顯淨目所見妙色。其後四頌寄東南方佛號。嘆究竟智深妙界。

7언으로 된 계송에도 두 가지 구분이 있다. 앞의 두 계송⁵²⁾은 저 여섯 번째인 목수(目首)보살에 의지하여, ‘청정한 눈에 보이는 오묘한 색(色)을 반대’로 드러냈고, 그 뒤의 네 계송⁵³⁾은

48)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離諸人天樂, 常行大慈心, 救護諸群生, 是彼淨妙業。」(T9, p.424a22-23), “인간과 천상의 모든 즐거움 떠나 언제나 큰 인자한 마음 일으켜 이 중생들 모두 구호하나니 이것이 그 깨끗하고 묘한 업이네.”

49)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一向信如來, 其心不退轉, 不捨念諸佛, 是彼淨妙業。永離生死海, 不退佛法流, 善住清涼慧, 是彼淨妙業。身四威儀中, 觀佛深功德, 晝夜常不斷, 是彼淨妙業。知三世無量, 不生懈怠心, 常求佛功德, 是彼淨妙業。」(T9, p.424a24-b2), “한결같이 언제나 아래를 믿어 그 마음이 물러나는 일이 없으며 모든 부처 생각을 안 버리나니 이것이 그 깨끗하고 묘한 업이네. 나고 죽는 바다를 영원히 떠나 불법의 흐름에서 물러남 없고 청량(清涼)한 그 지혜에 잘 머무르나니 이것이 그 깨끗하고 묘한 업이네. 몸의 네 가지 위의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깊은 공덕 잘 관찰하되 밤낮으로 언제나 안 끊이나니 이것이 그 깨끗하고 묘한 업이네. 삼세가 한량없음 잘 알아서 게으른 마음을 낼 줄 모르고 부처님의 공덕을 늘 구하나니 이것이 그 깨끗하고 묘한 업이네.”

50)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觀身如實相, 一切皆寂滅, 離我非我著, 是彼淨妙業。觀察眾生心, 遠離虛妄想, 成就實境界, 是彼淨妙業。」(T9, p.424b3-6), “여실한 몸의 모양 관찰할 때에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적멸하여 나[我]와 나 아님[非我]의 집착 떠났나니 이것이 그 깨끗하고 묘한 업이네. 중생들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허망한 온갖 생각 멀리 여의어 진실한 그 경계를 성취했나니 이것이 그 깨끗하고 묘한 업이네.”

51)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能稱無量土, 悉飲一切海, 成就神通智, 是彼淨妙業。計數諸佛國, 色相非色相, 一切盡無餘, 是彼淨妙業。無量佛土塵, 一塵為一佛, 悉能知其數, 是彼淨妙業。」(T9, p.424b7-12), “한량없는 세계 국토 모두 일컫고 온 세계의 바닷물 모두 마시어 신통의 그 지혜를 성취했나니 이것이 그 깨끗하고 묘한 업이네. 모든 부처 국토의 한량이 없는 온갖 색(色)과 색 아닌 것 다 세어 보되 그것들을 다 세어 남김 없나니 이것이 그 깨끗하고 묘한 업이네. 한량없는 부처 국토 그 많은 티끌 한 티끌 티끌마다 한 부처 될 때 그 부처님 수효를 모두 아나니 이것이 그 깨끗하고 묘한 업이네.”

52)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若以色性大神力, 而欲望見調御士, 是則瞽目顛倒見, 彼為不識最勝法。如來身色形相處, 一切世間莫能觀, 億那由劫欲思量, 妙色威神不可極。」(T9, p. 424b24-27), “빛깔이나 성품이나 큰 신통으로 만일 저 조어사(調御士)를 보려 한다면 그것은 병난 눈의 잘못 봄이니 그는 참 부처님 법 알지 못하리. 그 몸의 빛깔이나 형상으로는 아무도 아래를 볼 수 없나니 억 나유타 겁을 두고 생각하여도 묘한 빛깔 그 위신은 다 알 수 없네.”

53)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非以相好為如來, 無相離相寂滅法, 一切具足妙境界, 隨其所應悉能現。諸佛正法不可量, 無能分別說其相, 諸佛正法無合散, 其性本來常寂滅。不以陰數為如

동남방 부처님 명호에 기대어, ‘구경지(究竟智)의 깊고 오묘한 경계를 찬탄’하였다.

五言頌中亦有二分。在前二頌依目首名。嘆佛淨眼自在法門。後之三頌寄彼佛號。嘆究竟智甚深「離」疑剩{編}。境界。

5언으로 된 계송에도 두 가지 구분이 있다. 앞의 두 계송⁵⁴⁾은 목수[보살]의 이름에 의지하여, 부처님의 ‘청정한 눈의 자재한 법문을 찬탄’하였고, 뒤의 세 계송⁵⁵⁾은 저 [동남방] 부처님 명호에 기대어, ‘구경지의 깊고 깊은 경계를 찬탄’하였다.

7) 진수보살의 법문 : 백만불국토에 두루 비침

第七頌中亦作二分。在前二頌寄西南方佛號。讚佛無上智覺。其後八頌依彼菩薩進首之名。顯其進入佛智境界。

제7 계송도 두 부분이다. 앞의 두 계송은 서남방 부처님 명호에 기대어, ‘부처의 위없는 지혜와 깨달음(佛無上智覺)을 찬탄’하였고, 그 뒤의 여덟 계송은 저 [일곱 번째] 보살인 진수(進首)의 이름에 의지하여, ‘부처 지혜의 경계에 들어감’을 드러냈다.

初中亦二。前嘆自覺覺他無上之智。後讚無染無毀無上之德。

앞[의 두 계송]도 둘이다.

앞의 것⁵⁶⁾은 ‘스스로도 깨치고 다른 사람도 깨치게 하는 위없는 지혜를 찬탄’하였고,

뒤⁵⁷⁾는 ‘물됨도 없고 허물어짐도 없는 위없는 덕을 찬탄’하였다.

來，遠離取相真實觀，得自在力決定見，言語道斷行處滅。等觀身心無異相，一切內外悉解脫，無量億劫不二元，善逝深遠無所著。」(T9, p.424b28-c6), “여래는 상호(相好)로 된 것 아니매 아무 형상도 없는 적멸한 법이건만 모든 묘한 경계를 두루 갖추어 교화할 상대 따라 나타나시네. 부처님의 바른 법 측량 못하고 말로도 그 모양을 분별 못하여 그것은 또 모이거나 흠어짐이 없나니 그 성품은 본래부터 늘 적멸하네. 부처님 오온으로 된 것 아니매 모양 집착 버려야 참으로 보고 자재한 힘 얻어야 볼 수 있나니 말의 길 끊어지고 생각도 못 미치네. 몸과 마음 평등하여 두 모양 없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모두 해탈해 억겁 동안 두 생각 안 가지나니 선서님은 깊고 멀어 집착이 없네.”

54)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普放妙光明，遍照世境界，淨眼一切智，自在深廣義。一能為無量，無量能為一，知諸眾生性，隨順一切處。」(T9, p. 424c7-10), “그 묘한 광명을 한없이 놓아 모든 세계 경계를 다 비추나니 깨끗한 그 눈과 일체 지혜로 자재하게 깊고 넓은 이치를 아네. 한 몸으로 한량없는 몸이 되다가 한량없는 몸이 다시 한 몸 되나니 중생들의 그 성질을 다 잘 알기에 그를 따라 온갖 곳에 다 나타나네.”

55)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身無所從來，去亦無所至，虛妄非真實，現有種種身。一切諸世間，皆從妄想生，是諸妄想法，其性未曾有。如是真實相，唯佛能究竟，若能如是知，是則見導師。」(T9, p.424c11-16), “이 몸은 왔지마는 온 데가 없고 이 몸은 가지마는 가는 데 없고 허망하여 진실한 것 아니지마는 가지가지 그 몸을 나타내 있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다 망상에서 생긴 것인데 망상에서 생겨난 그 모든 법의 그 성품은 본래부터 없는 것이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진실한 모양 그것은 부처님만 능히 아나니 만일 그와 같이 알 수 있다면 그는 곧 저 도사(導師)를 볼 수 있으리.”

56)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最勝自覺超世間，無依殊特莫能勝，大仙化度一切有，具足淨妙諸功德。」(T9, p.424c28-29), “혼자 깨친 부처님 세상 뛰어나 기댐 없이 특수하여 이길 이 없네. 모든 중생 교화하여 제도하면서 깨끗하고 묘한 공덕 다 갖추었네.”

57)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其心無染無處所，常住無想亦無依，永處吉祥無能毀，威

後八頌中四雙不現。第一雙者進入佛智進入法海。第二雙者正轉法輪正思佛道。第三雙者順佛眞教知佛實德。第四雙者觀察寂滅了知平等。是謂進首進入法門也。

뒤의 여덟 계송은 네 쌍이다.

첫째 쌍⁵⁸⁾은 ‘부처 지혜에 닳아 들어가고, 법의 바다에 닳아 들어간다.’

둘째 쌍⁵⁹⁾은 ‘법의 바귀를 바르게 굴리고, 부처 도를 바르게 생각한다.’

셋째 쌍⁶⁰⁾은 ‘부처의 참된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의 진실한 덕을 안다.’

넷째 쌍⁶¹⁾은 ‘적멸을 관찰하고, 평등을 완전히 안다.’

이것은 진수[보살]가 닳아 들어간 법문이다.

8) 법수보살의 법문 : 일억불국토에 두루 비침

第八偈中有二十頌。卽爲二分。在前十頌寄西北方佛號。嘆自在智方便。後十頌依菩薩法首之名。嘆於法義隨順智力。

제8 계송에는 스무 가지 계송이 있는데 둘로 나눈다. 앞의 열 계송은 서북방 부처님 명호에 기대어, ‘자재한 지혜의 방편(自在智方便)을 찬탄’하였고, 뒤의 열 계송은 [여덟 번째] 보살 법수(法首)의 이름에 의지하여, ‘법의 의미를 따르는 지혜의 힘을 찬탄’하였다.

初中五雙。第一雙者大智自在大德成就。第二雙者覺性廣觀離相深樂。第三雙者於有無礙於空無著。第四雙者諦了差別樂觀平等。第五雙者攝一切智成最勝意。如是五雙十門方便。皆是自在智差別也。

-
- 德尊重大導師。」(T9, p.425a1-2), “그 마음 집착 없고 물들지 않고 생각 없고 기뻐하는 거기 머물러 언제나 상서로워 깨뜨릴 수 없나니 그 위덕이 높으신 대도사(大導師)시네.”
- 58)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從本淨明滅眾冥, 永離諸染無塵穢, 寂然不動離邊想, 是名善入如來智。欲入善逝深法海, 遠離身心虛妄想, 解了諸法真實性, 永不隨順疑惑心。」(T9, p.425a3-6), “본래부터 맑고 밝아 어두움 없고 더러움 아주 버려 티끌 없으며 두 치우침 멀리 떠나 고요하니 부처님의 지혜에 잘 든 것이네. 선서님의 깊은 법에 들어가려면 마음과 몸에 대한 망상 버리고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을 알아 영원히 그 의혹을 따르지 말라.”
- 59)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一切世界如來境, 悉能為轉正法輪, 於法自性無所轉, 無上導師方便說。曉了諸法無疑惑, 有無妄想永已離, 不生差別種種念, 正意思惟佛菩提。」(T9, p.425a7-10), “모든 세계 부처님의 그 경계에서 바른 법의 바귀를 굴리지마는 그 법의 자성(自性)에는 굴릴 것 없나니 최상의 도사님이 방편으로 말하시네. 모든 법을 잘 알아 의혹이 없고 허망한 생각들을 영원히 떠나 차별하는 온갖 생각 내지 않으면 부처님의 보리를 바로 생각하는 것이네.”
- 60)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諦了分別諸法時, 無有自性假名說, 隨順諸佛真實教, 法非一相亦不多。眾多法中無一相, 於一法中亦無多, 若能如是了諸法, 是知諸佛無量德。」(T9, p.425a11-14), “모든 법을 분별해 환히 알면 그것은 자성 없고 이름뿐이네.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 따르면 그 법은 한 모양도 많은 것 아니네. 많은 법 가운데는 한 성품 없고 그 한 법 가운데도 많은 것 없네. 만일에 이와 같이 모든 법 알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알리라.”
- 61)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觀察諸法及眾生, 國土世間悉寂滅, 心無所依不妄想, 是名正念佛菩提。眾生諸法及國土, 分別了知無差別, 善能觀察如自性, 是則了知佛法義。」(T9, p.425a15-18), “모든 법과 중생과 그 국토와 세간 모두 적멸함을 잘 관찰하여 의지하는 데도 없고 망상 없으면 그것은 부처 보리 바로 생각하는 것이네. 중생과 모든 법과 또 국토를 분별하여 차별 없음 환히 알아 제 성품 그와 같이 잘 관찰하면 그것은 불법 이치 아는 것이네.”

앞[의 열 계승]에는 다섯 쌍이 있다.

첫째 쌍⁶²⁾은 ‘큰 지혜가 자재하여 큰 덕을 성취한다.’

둘째 쌍⁶³⁾은 ‘[번뇌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대단한 즐거움임을 깨달음의 본성으로 자세하게 관찰한다.’

셋째 쌍⁶⁴⁾은 ‘있음에 걸림이 없고 비었음에 집착이 없다.’

넷째 쌍⁶⁵⁾은 ‘차별을 자세하게 알고 평등을 기쁘게 관찰한다.’

다섯째 쌍⁶⁶⁾은 ‘모든 지혜를 거두어 가장 뛰어난 의도를 이룬다.’ 이와 같은 다섯 쌍의 열 가지 방편이 모두 자재지(自在智)의 차별이다.

次嘆法智。亦有五雙。第一雙者深法順知至處遍至。第二雙者隨順一心能至深境。第三雙者記念時節了知成敗。第四變者所知差別能了方便。第五雙者觀察三世覺知平等。五雙皆是法首法門也。

다음은 법에 대한 지혜를 찬탄하는데 역시 다섯 쌍이 있다.

첫째 쌍⁶⁷⁾은 ‘깊은 법에 따라 알아서 가야 할 곳에 두루 도달한다.’

둘째 쌍⁶⁸⁾은 ‘일심에 따라 순종하여 깊은 경계에 도달한다.’

62)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大智無有量，妙法無倫匹，究竟能度彼，生死大海岸，壽命無終極，永已離熾然，彼成大功德，是則方便力。」(T9, p.425b1-4), “부처님의 큰 지혜 한량이 없고 묘한 법 다시는 그 짝이 없어 마지막에는 저 나고 죽음의 큰 바다의 언덕에 잘 건너가네. 그 목숨 한량없어 끝 간 데 없고 불꽃같은 번뇌를 영원히 떠나 그는 그 큰 공덕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곧 그들의 방편 힘이네.”

63)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於諸佛深法，隨覺如自性，常觀三世法，不生止足想，了達所緣境，未曾起妄想，彼樂不思議，是則方便力。」(T9, p.425b5-8), “모든 부처님의 그 깊은 법을 자성(自性) 그대로 따라 깨달고 삼세 법을 항상 관찰하면서 충분하다는 생각 낼 줄 모르네. 반연되는 경계를 분명히 알아 망상을 일으킨 적 전혀 없었고 불가사의한 일을 즐겨 하나니 이것은 그들의 방편 힘이네.”

64)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常樂觀眾生，而無眾生想，示現有身趣，永離諸趣想，內常樂禪寂，而無繫心想，彼心無所著，是則方便力。」(T9, p.425b9-12), “언제나 즐겨 중생들 관찰하되 그러나 중생이란 생각이 없고 몸의 갈래 있음을 나타내 보이나 모든 갈래란 생각 아주 떠났네. 마음으로 언제나 선정 즐기나 마음을 매였다는 생각이 없어 그 마음에는 아무 집착 없나니 이것은 곧 그들의 방편 힘이네.”

65)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方便善觀察，諦了諸法相，專念正思惟，常行涅槃性，樂於解脫道，具足平等慧，彼住寂滅法，是則方便力。」(T9, p.425b13-16), “갖가지 방편으로 잘 관찰해 모든 법의 모양을 분명히 알고 바른 생각으로 오로지 생각하여 언제나 열반 성품 닦아 행하네. 언제나 해탈 길을 즐거워하고 평등한 그 지혜를 두루 갖추어 그는 적멸의 법에 머무르나니 이것은 곧 그들의 방편 힘이네.”

66)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隨順調御士，最勝佛菩提，攝取一切智，廣大如法性，善入真實諦，教化諸群生，彼成最勝意，是則方便力。」(T9, p.425b17-20), “위대한 조어사(調御士)를 항상 따르고 최상의 부처 보리 늘 생각하며 일체의 모든 지혜 거두어 가져 넓고 크기는 마치 법성(法性)과 같네. 진실한 그 진리에 잘 들어가 모든 중생 무리를 다 교화하며 그는 부처님 뜻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곧 그들의 방편 힘이네.”

67)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佛說深法義，悉能隨順知，入深廣智慧，滅除諸障礙，一切至處道，是處悉能到，行是自覺道，是則方便力。」(T9, p.425b21-24), “부처님이 깊은 법 뜻 말씀하시면 그 따라 그것들을 모두 다 알며 깊고 넓은 지혜에 두루 들어가 갖가지 장애들을 모두 없애네. 그들의 가는 데는 모두가 도(道)며 그들의 가는 곳은 모두 옳은 곳 행하는 것 모두 다 깨달음의 길이 것은 곧 그들의 방편 힘이네.”

68)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心猶虛空界，亦如變化法，一切所依性，是相則非相，行

셋째 쌍⁶⁹)은 ‘시절을 기억하여 성패(成敗)를 잘 안다.’

넷째 쌍⁷⁰)은 ‘알고 있는 차별에 맞추어 방편을 완전히 안다.’

다섯째 쌍⁷¹)은 ‘삼세를 관찰하여 평등을 잘 안다.’ 다섯 쌍은 모두 법수의 법문이다.

9) 지수보살의 법문 : 십억불국토에 두루 비침

第九頌中。亦有二分。在前十頌寄彼下方佛號。嘆梵天智法門。其後十頌依彼智首菩薩之名。嘆其却闇智燈法門。

제9 계송도 두 부분이 있다. 앞의 열 계송은 저 하방 부처님 명호에 기대어, ‘범천의 지혜(梵天智)법문을 찬탄’하였고, 그 뒤의 열 계송은 저 지수(智首)보살의 이름에 의지하여, ‘어두움을 물리치는 지혜의 등불 법문을 찬탄’하였다.

初中有二。二頌略標。八頌廣釋。標中亦二。前明梵行後顯梵音。言梵行者。梵天現化人間時。受難行法形如骨鎖。常知難行即是梵行。

처음[열 계송]에 둘이 있다. [앞의] 두 계송은 간단히 나타낸 것이고, [뒤의] 여덟 계송은 자세하게 풀이한 것이다. [간단히] 나타낸 부분도 둘이다. 먼저⁷²) 범천의 수행을 밝혔고, 뒤⁷³)는 범천의 소리를 드러냈다. 범천의 수행이라고 말한 것은 범천이 변화하여 인간을 교화할 때는 어려운 수행법을 받아서 모습이 앙상한 뼈처럼 되므로 [경문에서처럼] 늘 어려운 수행인 줄 안 것이 바로 범천의 수행이다.

於涅槃性，猶若虛空相，能到深妙境，是則方便力。」(T9, p.425b25-28), “마음이란 마치 저 허공계 같고 그것은 또 변화하는 법과 같아서 그것이 의지하는 모든 성품은 모양을 나타내나 모양 아니네. 열반의 성품을 항상 행하지만 그것은 마치 저 허공 모양과 같아 깊고 묘한 경계에 잘 이르나니 이것은 곧 그들의 방편 힘이네.”

69)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常記念晝夜，晦朔日月數，年歲時劫分，亦隨觀察知，一切諸世界，始終成敗相，悉能諦了知，是則方便力。」(T9, p.425b29-c3), “낮과 밤과 그믐과 초하루와 날과 달의 그 수를 생각해 알고 그리고 해와 많은 겁의 나뉘는 그것도 그 따라 관찰해 아네. 그리고 또 저 모든 세계들의 시작과 마침,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그 모양도 모두 다 밝게 아나니 이것은 곧 그들의 방편 힘이네.”

70)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一切群萌類，隨業受生死，有色及無色，有想亦非想，彼彼姓名號，所趣諦了知，得此不思議，是則方便力。」(T9, p.425c4-7), “그리고 또 저 모든 중생들 그 업을 따라 나고 죽음과 유형 세계와 무형 세계와 유상(有想) 세계와 비상(非想) 세계의 그들의 그 모든 성과 이름과 나아가는 그 사람들 환히 알아 그런 불가사의를 다 얻었나니 이것은 곧 그들의 방편 힘이네.”

71)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一切過去世，未來現在法，隨順佛所說，善念諦觀察，覺三世平等，如其真實相，是諸深妙道，無比方便力。」(T9, p.425c8-11), “한량없는 그 모든 지난 세상과 오는 세상과 또 현세에 있어서 부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 잘 생각해 분명히 관찰하고 삼세의 평등함 깨달아 알고진실한 그 모양도 그대로 알아 이것은 깊고 묘한 모든 도(道)로서 비할 데 없는 방편의 그 힘이네.”

72)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受持難行法，堅固不退轉，日夜常精進，未曾起疲厭。」(T9, p.425c23-24), “행하기 어려운 법 받들어 가져 견고히 닦으면서 안 물러나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정진해 싫증을 일으킨 일 일찍이 없었네.”

73)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已度難度海，大音師子吼，一切眾生類，我今悉當度。」(T9, p.425c25-26), “건너가기 어려운 바다를 건너 큰 소리로 외치는 사자후로써 헤매는 저 모든 중생 무리들 나는 지금 그들을 다 제도하리.”

八頌廣釋。卽顯四門。一者二頌離高慢法門。除生死苦難。二者二頌不放逸法門。除世間放逸。三者二頌宣無我教門。滅衆生著我。四者二頌弘誓普潤門。滅衆生熾火。此曰皆是梵天行門也。

여덟 계송으로 자세하게 풀이한 부분은 네 가지 문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두 계송⁷⁴⁾은 높은 교만을 벗어나는 법문이니 나고 죽는 고난을 없앤다.

두 번째 두 계송⁷⁵⁾은 게으르지 않는 법문이니 세간의 게으름을 없앤다.

세 번째 두 계송⁷⁶⁾은 내가 없다는 가르침을 펼치는 문이니 중생이 나에게 집착함을 없앤다.

네 번째 두 계송⁷⁷⁾은 큰 서원으로 널리 기뻐지게 하는 문이니 중생의 치솟는 불길을 없앤다.

이것을 모두 범천의 수행문이라고 한다.

後十頌中亦有二分。在前二頌略標智門。於中前頌舉所滅闇。其後七頌顯能滅燈。

뒤의 열 계송도 두 가지 구분이 있다. 앞에 있는 두 계송은 지혜의 문을 간단히 나타내었다. 이 [두 계송] 중에 앞의 계송⁷⁸⁾은 없애야 할 어두움을 거론하였고, 그 뒤의 계송 하나⁷⁹⁾는 없애는 등불을 드러냈다.

八頌釋中亦有四門。一者二頌般渡漂流法門。二者二頌橋拯沈沒法門。三者二頌方便拔苦法門。四者二頌實智與樂法門。

74)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漂浪生死流，沈淪愛欲海，癡惑結重網，昏冥大怖畏，離慢堅固士，是能悉除斷，超勇成世雄，是則佛境界。」(T9, pp.425c27-426a1), “나고 죽는 흐름에 떠돌며 있고 애욕의 큰 바다에 빠져 헤매며 겹겹이 얽혀 있는 우치의 그물 어둠 속의 중생들 떨고 있나니 온갖 교만을 떠난 굳건한 선비 그것들을 모두 다 끊어 버리고 뛰어난 용맹으로 세상의 영웅 되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그 경계네.”

75)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世間諸放逸，長迷醉五欲，非實興妄想，永為大苦障，勤修不放逸，奉行諸佛法，大誓能度彼，是則佛境界。」(T9, p.426a2-5), “세상사람 방일에 항상 헤매고 다섯 가지 쾌락에 취해 있으며 진실이 아닌 데에 망상 일으켜 언제나 큰 고통의 장애 받을 때 부지런히 수행해 방일 안 하고 부처님 법 받들어 힘써 행하며 서원으로 저 언덕에 건너갔나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그 경계네.”

76)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慧者滅本際，無量難見劫，眾生依吾我，無窮生死轉，令入寂滅法，奉行最勝教，誓宣此妙法，是則佛境界。」(T9, p.426a6-9), “지혜로운 사람은 본제(本際)를 없애는데 한량없고 보기 힘든 오랜 겁 동안 중생들은 나[我]란 데에 집착 일으켜 다함없는 생사에 굴러다닐 때 그들을 적멸법에 들게 하려고 부처님의 가르침 받아 행하며 맹세코 묘한 법을 연설하나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그 경계네.”

77)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見彼苦眾生，孤惻無救護，永淪諸惡趣，三毒恒熾然，無間無救處，晝夜常火焚，誓度斯等苦，是則佛境界。」(T9, p.426a10-13), “한량없이 고통 받는 모든 중생들 외롭고 슬퍼하되 구호 없으며 온갖 나쁜 갈래에 늘 빠져 있어 삼독(三毒)이 불꽃처럼 맹렬히 타며 구원할 이도 없는 무간(無間) 속에서 밤낮으로 언제나 불에 탈 때에 맹세코 그들 고통 덜어 주나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그 경계네.”

78)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迷惑失正路，習行諸邪徑，見彼群生類，長處大闇冥。」(T9, p.426a14-15), “언제나 미혹하여 바른 길 잃고 온갖 그릇된 길을 닦아 익히며 큰 어둠 속에서 늘 헤매는 한량없는 중생들 무리를 보고”

79)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為現智慧燈，令見諸佛法，誓能為照明，是則佛境界。」(T9, p.426a16-17), “그들 위해 지혜의 등불 밝히어 모든 부처님 법을 보게 할 때에 지혜는 능히 밝은 등불 되나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그 경계네.”

여덟 계송으로 [자세히] 풀이한 부분은 또 네 가지 문이 있다.
 첫 번째 두 계송⁸⁰⁾은 배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건네주는 법문이다.
 두 번째 두 계송⁸¹⁾은 다리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법문이다.
 세 번째 두 계송⁸²⁾은 방편으로 괴로움을 뽑는 법문이다.
 네 번째 두 계송⁸³⁾은 진실한 지혜로 즐거움을 주는 법문이다.

10) 현수보살의 법문

第十頌中亦有二分。在前四頌寄彼上方佛號。歎伏怨智法門。後十六頌依彼菩薩賢首之名。廣說賢首勝能法門。

제10 계송도 두 가지 구분이 있다. 앞에 있는 네 계송은 저 상방의 부처님 명호에 기대어, '원한을 항복시키는 지혜(伏怨智) 법문을 찬탄'하였고, 뒤의 열여섯 계송은 저 (열 번째) 보살인 현수(賢首)의 이름을 의지하여, '현수의 뛰어난 능력 법문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初中有二。在前二頌正顯伏怨勝智十力。其次二頌標示伏怨名聲勝德。

앞[의 네 계송]에 들어 있다.
 앞에 있는 두 계송⁸⁴⁾은 원한을 항복시키는 뛰어난 지혜의 열 가지 힘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 다음의 두 계송⁸⁵⁾은 원한을 항복시키는 이름의 뛰어난 덕을 나타냈다.

-
- 80)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一切三有海, 深廣無涯底, 見彼群生類, 漂溺莫能濟, 為彼勤方便, 興造正法船, 普拯所應度, 是則佛境界。」(T9, p.426a18-21), “삼유의 괴로운 모든 바다는 깊고 넓어 그 끝도 밑도 없는데 나 거기 빠져 헤매 건질 이 없는 한량없는 그 모든 중생들 보고 그들 위해 방편을 움직이어서 바른 법의 큰 배를 마련하고는 건질 수 있는 이를 다 건지나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그 경계네.”
- 81)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無有本實見, 常依無明住, 沈沒生死淵, 愚癡心迷亂, 慧者見斯苦, 為之設法橋, 大悲演說法, 是則佛境界。」(T9, p.426a22-25), “진실한 근본은 보지 못하고 언제나 무명을 의지해 머무르며 나고 죽는 못에 빠져 헤매며 어리석은 마음 어지러울 때 지혜로운 이는 이 고통 보고 그들 위해 법의 다리 마련하고는 가없이 여김으로 설법하나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그 경계네.”
- 82)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見彼生死獄, 楚毒難可量, 長夜老病死, 三苦競侵逼, 自覺深妙法, 專修方便慧, 誓度斯等苦, 是則佛境界。」(T9, p.426a26-29), “언제나 나고 죽는 저 지옥 보면 못 견딜 그 고통 한량이 없고 늙음·병듦·죽음의 세 가지 고통 오랜 겁을 다투어 찰박하나니 깊고도 묘한 법을 홀로 깨닫고 방편의 지혜를 오로지 닦아 맹세코 그 고통을 구제하나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그 경계네.”
- 83)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聞佛甚深法, 信心無疑惑, 周滿十方刹, 普行諸法界, 觀察空寂法, 其心無恐怖, 現同一切身, 是則天人師。」(T9, p.426b1-4), “부처님의 매우 깊은 법을 듣고서 믿는 맘에 조금도 의혹이 없어 그들 모두十方세계 가득히 차고 또한 모든 법계를 두루 다니네. 비고 고평한 법을 관찰하고도 그 마음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똑같은 모든 몸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부처님의 그 경계네.”
- 84)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無量無數劫, 一念悉觀察, 無來亦無去, 現在亦不住, 一切生滅法, 悉知真實相, 超度方便岸, 具足十種力。」(T9, p.426b20-23), “한량없고 수없는 그 많은 겁을 한 생각 가운데서 다 관찰할 때 온 것도 없거니와 간 것도 없고 현재에도 또한 머물러 있지 않네. 나고 또 사라지는 모든 법의 진실한 그 모양을 모두 다 알고 방편의 저 언덕을 뛰어넘어가 열 가지 힘 두루두루 다 갖추었네.”
- 85)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無等大名稱, 普遍十方刹, 永離生死難, 究竟一切法, 皆悉能遍至, 一切諸世界, 具足能敷演, 清淨微妙法。」(T9, p.426b24-27), “견줄 데 없이 뛰어난 큰

普爲衆生以下第二賢首法門。於中有二。前之四頌下化衆生勝能。後十二頌上求佛道勝能。

“널리 중생을 위해” 이하는 [열 번째 대목의] 두 번째인 [열여섯 계승으로 이루어진] 현수의 법문이다. 여기에 둘이 있다. 먼저 네 계승⁸⁶⁾은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는 뛰어난 능력이고, 나중의 열두 계승은 위로 부처의 도를 구하는 뛰어난 능력이다.

法問十方佛以下。第二上求佛道。合十二頌以爲六雙。

“시방의 부처님에게 묻다.” 이하는 [현수보살 법문의] 두 번째인 위로 부처의 도를 구하는 부분이다. 열두 계승을 합하여 여섯 쌍으로 한다.

一者問佛見佛爲雙。二者能說能化爲雙。三者聞佛音見佛身以爲雙也。四者著有無著開以爲雙也。第五雙者下喻上法。第六雙者外譬內法。此後兩雙依比量門證成佛身周遍之義。

첫째⁸⁷⁾는 부처에게 묻는 것과 부처를 보는 것이 쌍이다.

둘째⁸⁸⁾는 설하는 것과 교화하는 것이 쌍이다.

셋째⁸⁹⁾는 부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부처의 몸을 보는 것이 쌍이다.

이름 시방 모든 세계에 두루 들리고 나고 죽는 어려움 아주 벗어나 일체 법을 끝까지 모두 알았네. 일체 모든 세계 빠뜨림 없이 어디에도 두루두루 다 다니며 맑고도 깨끗하고 미묘한 법을 날날이 갖추며 연설하시네.”

86)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普爲眾生類，正心奉諸佛，是故獲直心，真實淨依果，隨順分別知，了達如如相，得佛自在力，十方靡不現。從始供養佛，樂行忍辱法，能入深禪定，觀察真實義，悉令一切眾，歡喜向如來，菩薩行是法，速逮無上道。」(T9, p.426b28-c6), “이 중생 무리들을 두루 위하여 바른 마음으로 모든 부처 받들었나니 그러므로 곧은 마음과 그와 비슷한 진실하고 깨끗한 과보 얻었네. 모든 법을 따라 분별해 알고 그의 여여(如如)한 모습 환히 통달해 부처님들 자재하신 그 힘을 얻어 시방세계 어디에도 다 나타내네. 처음으로 부처님께 공양하고서 인욕하는 법을 즐겨 행하고 깊은 선정에 들어 생각을 닦아 진실한 법의 이치 관찰하였네. 중생들로 하여금 기뻐하면서 모두 부처님께로 오게 하니 보살들은 이런 법 잘 행하므로 다시없는 그 도를 빨리 이루네.”

87)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能問十方佛，其心常湛然，信佛不退轉，威儀悉具足，一切有無法，了達非有無，如是正觀察，能見真實佛。」(T9, p.426c7-10), “시방의 부처님께 그 법을 물어 어지럽던 마음 늘 고요하고 부처님 믿는 마음 안 물러나며 네 가지의 위의를 두루 갖췄네. 있거나 없거나의 그 모든 법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님을 알아 이와 같이 바르게 잘 관찰하면 그는 능히 진실한 부처님 보리.”

88)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無量淨樂心，境界滿十方，一切國土中，能說真實義，滅除眾垢難，安住平等法，若能如是化，斯人等如來。」(T9, p.426c11-14), “한량없는 깨끗하고 즐거운 마음 그 경계가 시방세계 가득하니 그리하여 모든 국토 두루 다니며 진실한 그 이치를 잘 말씀하네. 온갖 번뇌 어려움 없애 버리고 평등한 그 한 법에 편히 머물라 만일 누구라도 이와 같을 때 그 사람은 여래와 같다 하리라.”

89)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聞佛妙音聲，速得無上法，常轉淨法輪，甚深難知見，最勝所說法，具足七覺義，如是無上觀，常見諸佛身。」(T9, p.426c15-18), “저 부처님의 묘한 음성을 듣고 다시없는 그 도를 빨리 얻어서 깨끗한 법 바퀴를 늘 굴리나니 매우 깊어 알거나 보기 어렵네. 부처님이 말씀하는 묘한 그 법은 일곱 가지 각의(覺義)를 갖추었나니 이와 같이 위없는 도 잘 관찰하면 그는 항상 부처님의 몸을 보리라.”

넷째⁹⁰⁾는 있음에 대한 집착과 집착 없음의 열[고 닫]음이 쌍이다.

다섯째 쌍⁹¹⁾은 아래로는 비유이고 위로는 법이다.

여섯째 쌍⁹²⁾은 밖으로는 비유이고 안으로는 법이다.

이 마지막의 [다섯째와 여섯째의] 두 개의 쌍은 비량문(比量門)에 의지하여 부처 몸이 널리 두루하다는 의미를 증명하였다.

結語(결어)

上來十重光明遍照。顯佛色身無所不遍。十重說偈讚佛功德。明佛內德亦無不周。

지금까지 열 단계 광명이 두루 비치는 것으로 부처의 색신(色身)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드러냈고, 열 대목 계승으로 부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으로 부처의 내덕(內德)도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음을 밝혔다.

於中亦顯菩薩德者。明諸菩薩隨佛能適。於佛起疑除遣已盡。

그 안에서 보살의 덕도 드러냈던 것은 모든 보살은 부처를 따라 정확하게 [부처의 능력과] 들어맞음을 밝혔다. 부처에 대해 일어나는 의문을 제거하는 것을 모두 마친다.

V. 『화엄경소』의 내용과 분석

1. 서지사향

불타발타라가 한역한 진역화엄(60권)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신라는 물론 전근대 우리나라에서 찬술된 유일한 『화엄경』 자체에 관한 주석서⁹³⁾이다. 원래는 8권이었는데 후대에 10권으로 편집⁹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는 단편잔간으로서, 그 서문과 권3 「여래광명각품」의 주

90)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不見如來空, 寂滅猶幻化, 雖見無所見, 如盲對五色, 虛妄取相者, 是人不見佛, 一切無所著, 乃見真如來。」(T9, p.426c19-22), “보지 못하면 부처님도 공(空)하고 그리고 적멸하기 환화(幻化) 같나니 비록 보나 아무것도 봄이 없으면 장님이 다섯 빛깔 대한 것 같네. 망령되어 그 모양에 집착하는 자. 그는 끝내 여래를 보지 못하리. 어디에도 아무런 집착 없어야 비로소 참 여래 볼 수 있으리.”

91)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眾生種種業, 難可分別知, 十方內外身, 種種無量色, 佛身亦如是, 一切滿十方, 難知能知者, 彼是大導師。」(T9, p.426c23-26), “모든 중생들의 갖가지의 업 그것은 분별하여 알기 어렵고 그 따라 시방과 안팎의 그 몸 가지가지 한량없는 빛깔들이네. 부처님 몸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시방세계에 가득하니 알기 어려운 것을 능히 아는 이 그야말로 바로 큰 도사(導師)이니라.”

92) 《大方廣佛華嚴經》卷5<5 如來光明覺品>: 「譬如無量刹, 依止虛空住, 不從十方來, 去亦無所至, 世界若成敗, 本來無所依, 佛身亦如是, 充滿虛空界。」(T9, pp. 426c27-427a1), “비유하면 한량없는 모든 세계들 허공을 의지하여 머무를 때에 시방의 어디에서 온 곳도 없고 가도 가는 곳이 없는 것처럼 이 세계의 이뤄지고 무너지는 것 그것 본래 의지한 데 없는 것처럼 부처님 몸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저 허공 세계에 가득하니라.”

93) 최연식, 「신라 및 고려시대 화엄학 문헌의 성격과 내용」, 『불교학보』, 제60 p.242.

94) 의천, 『신편제종교장총록』 권1(H4, p.680b). 권5가 상하 2권으로, 『화엄경종요』를 포함하여 10권이

석 일부만 전해진다. 둘은 따로 전해지는 것을 합한 것인데, 서는 조선 초기 간행된 『동문선』 권83⁹⁵⁾에 수록된 「진역화엄경소서(晉譯華嚴經疏序)」이고 권3 「여래광명각품」의 주석은 『신수대장경』 제85권 고일부(古逸部)에 수록되어있다. 『신수대장경』 수록본은 고산지(高山寺)에 있는 세키스이인(石水院) 소장본을 1670년에 필사한 것이다. 원효의 화엄 관련 저술⁹⁶⁾ 중 현존하는 유일한 것으로서, 원효의 화엄경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화엄경소』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진 원효의 독자적인 4교판에 관한 내용은 중국의 법장과 그의 제자 해원 등 다른 저술들에서 인용된 것이다.

2. 주요 내용

1) 서

『화엄경』은 “무장무애법계(無障無礙法界)의 법문(法門)”이라 하고 모든 대보살들이 들어가고 삼세제불이 나오는 바이지만 이승(二乘), 사과(四果)는 귀먹고 눈멀며 범부, 하사는 코웃음치거나 놀라워할 따름이라 한다. 그렇지만 이 문에 의지한다면 무장무애한 일들이 딱히 특별한 것이 아니니, 일단 이 “보문(普門)”에 들어간다면 높은 하늘의 봉황과 드넓은 바다의 하백처럼 그동안 배운 것들의 협소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한다. 즉, 『화엄경』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경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 속에 사는 작은 새와 시냇물에 사는 작은 물고기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얕은 교문(敎門)이라 할지라도 결코 버려져선 안 되기에, 이 『화엄경』에서 법계의 법문을 활짝 열어 펼치고 행덕을 밝게 드러내 보인 것이라 하였고, 이 경을 “원만무상돈교법륜(圓滿無上頓敎法輪)”으로서 규정하였다. 이는 무장무애한 법과 불보살의 행덕에 의해서 얕은 근기의 사람도 이 법문에 충분히 들어가 수행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전의 제목을 설명하면서 ‘법계의 한계없이 넓음[大方廣]’과 ‘행덕의 끝없는 장엄[佛華嚴]’을 경의 종지로 들었고, 이와 같은 원만한 법륜은 유정에게 지극한 귀칙으로서 절대 변치 않는다면 대의를 설명하였다.

2) 권3 「여래광명각품」

① 구성

ㄱ. 대의(大意)

ㄴ. 석문(釋文)

ㄴ-1. 광명이 나오는 곳

ㄴ-2. 광명에 의해 비추어지는 곳

ㄴ-2.1. 第一重 삼천대천세계

ㄴ-2.2. 第二重 십불국토

ㄴ-2.3. 第三重 백불국토

된다. 비교적 주석초반 부분인 「십회향품」에서 붓을 놓았기 때문에 미완작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95) 『동문선』에는 『진역화엄경소서』 외에도 『법화경중요서』, 『열반경중요서』, 『해심밀경소서』, 『금강삼매경론서』, 『본업경소서』 등 총 6종의 원효 저술의 서문이 수록되어있다.

96) 여러 목록과 인용문 등을 통해 『華嚴經疏』를 비롯하여 『華嚴經宗要』, 『華嚴經綱目』, 『大乘觀行』, 『一道章』, 『普法記』 등. (최연식, p.241.)

- ㄴ-2.4. 第四重 천불국토
- ㄴ-2.5. 第五重 만불국토
- ㄴ-2.6. 第六重 십만불국토
- ㄴ-2.7. 第七重 백만불국토
- ㄴ-2.8. 第八重 일억불국토
- ㄴ-2.9. 第九重 십억불국토
- ㄴ-2.10. 第十重 무한불국토

② 주요 내용

「여래광명각품」⁹⁷⁾은 부처의 두 발바닥에서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고 중생을 깨우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원효는 빛이 나오는 곳과 그 빛이 비추어지는 대상들을 나누어서 설명한다. 그 빛에 의해 비춰지는 장소들이 점차 10중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내용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첫째, 수행자의 신심 증진과 완성 둘째, 부처의 몸은 하나의 공간에 한정되어 있다는 의심의 제거이다.⁹⁸⁾

원효는 광명이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과 더불어 낱알의 세계마다 부처가 연화장사자좌에 앉아 있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수행자들로 하여금 부처의 몸은 하나의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공간에 두루 존재하고 있기에 부처의 신업과 구업의 과보도 법계에 두루 미치고 있음을 의심치 말라는 뜻으로 「여래광명각품」의 대의를 해석하였다.

<표1> 「여래광명각품」의 계송과 법문 내용⁹⁹⁾

97) 광명각(光明覺)이란 광명을 놓아 깨닫게 한다는 뜻이다. 먼저 부처님께서 두 발바닥으로 백억의 광명을 놓아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가지가지 차별한 현상들을 비춘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두 가지로 분류할 때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현상에 해당한다. 다음에는 문수보살이 지혜의 광명으로 평등한 이치를 비춘다. 이것은 존재의 본질을 뜻하는 광명이다. 부처님 몸의 광명과 문수보살의 지혜의 광명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 본질과 현상이 융합한 이체를 깨닫게 하였다. 즉 본질이 곧 현상이고 현상이 곧 본질인 이치,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인 이치를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본질과 현상이 원융하게 엮여서 천백억 화신으로 작용하는 사람 부처의 진정한 세계를 드러내 보인다.(여천무비,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제13권, 담앤북스, 2018, p.18)

98) 정희경, p.188.

99) 정희경, p.190

계송	부처의 명호	부처의 덕	보살의 명호	보살의 덕
第一重	동방불	불부동상 (佛不動相)	濡首菩薩	무주무득지 (無住無得智)
第二重	남방불	지혜화 (智惠火)	覺首菩薩	각수법문 (覺首法門)
第三重	서방불	정지법행 (淨智法行)	財首菩薩	요익일체중생법문 (饒益一切衆生法門)
第四重	북방불	구위덕지혜법문 (具威德智惠法門)	寶首菩薩	여연금청정 (如鍊金淸淨)
第五重	동남방불	구경지심묘계 (究竟智深妙界)	目首菩薩	정목소견묘색 (淨目所見妙色)
第六重	명지불 明智佛	명조부사의경 (明照不思議境)	德首菩薩	자리이타공덕 (自利利他功德)
第七重	서남방불	불무상지각 (佛無上智覺)	進首菩薩	진입불지경계 (進入佛智境界)
第八重	서북방불	자재지방편 (自在智方便)	法首菩薩	어법의수순지력 (於法義隨順智力)
第九重	하방불	법천지법문 (梵天智法門)	智首菩薩	각암지등법문 (却闇智燈法門)
第十重	상방불	복원지법문 (伏怨智法門)	賢首菩薩	승능법문 (賢首勝能法門)

원효는 광명이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과 더불어 낱낱의 세계마다 부처가 연화상사자좌에 앉아 있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수행자들로 하여금 부처의 몸은 하나의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공간에 두루 존재하고 있기에 부처의 신업과 구업의 과보도 법계에 두루 미치고 있음을 의심치 말라는 뜻으로 「여래광명각품」의 대의를 해석하였다.

10중으로 광명이 퍼져 나가는 세계 속에서 10중으로 펼쳐지는 일체처 문수사리보살(=유수보살)의 계송을 해석한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특색있는 모습을 보인다. 각각의 계송 내용을 분과하면서 10중 계송 모두 부처의 덕과 보살의 덕을 찬탄하는 2가지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석하였다.

원효에 의하면 제1중의 계송은 2가지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광명이 비추는 삼천대천세계에서 십억 염부제 낱낱의 일체처 유수보살들이 동방의 ‘부동지불(不動智佛)’이라는 명호에 의탁해 ‘부처의 부동상(不動相)’이라는 덕을 찬탄하는 법문이고, 둘째는 부동지불에게 수학한 유수보살의 명호에 의탁해 ‘보살의 무주무득지(無住無得智)’라는 덕을 드러내주는 법문이다.

제2중의 계송 또한 2가지 법문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광명이 비추는 십불국토에서 십억 염부제 낱낱의 일체처 유수보살들이 남방의 ‘지혜화불(智慧火佛)’이라는 명호에 의탁해 ‘부처의 지혜화(智惠火)’라는 덕을 찬탄하는 법문이고, 둘째는 지혜화불에게 수학한 각수보살의 명호에 의탁해 ‘보살의 자각각타(自覺覺他)’라는 덕을 드러내주는 법문이다.

이와 같이 원효는 10중의 계송을 모두 부처의 덕을 찬탄하는 법문과 그 부처에게서 수학한 보살의 덕을 드러내주는 법문으로 해석하였다.

3. 분석

일관되게 수행자의 입장에서 서술되는 점을 보인다. 서의 경우 수행자가 성불하게 되는 원리, 「여래광명각품」 주석에서는 수행자가 덕을 갖추게 되는 원리, 4교판설에서 수행자가 최종

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 지점 등의 내용을 통해 보면 철저히 수행자의 관점에서 『화엄경』을 해석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VI. 『화엄경소』의 특징과 영향

1. 핵심 키워드 : 보법(普法)

원효 화엄사상의 핵심개념은 보법이다. 일체법과 일체문이 상입(相入) 상시(相是)하는 법, 서의 무장무애의 법과 동일한 의미이다. 표원의 저술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되어 있다.

보법이란 일체법이 상즉 상입하는 것이다. 일체 세계가 한 미진에 들어가고, 한 미진이 일체세계에 들어간다. 삼세의 모든 겁이 한 찰나에 들어가고, 한 찰나가 삼세의 모든 겁에 들어간다. 大小, 促奢, 動靜, 一多와 같이 다른 일체문의 상입 또한 그러하다. 相是를 말하는 것 또한 그러하다. 일체법과 일체문에 있어서 하나는 일체이고, 일체는 하나이다. 이렇게 광탕한 것을 일러 보법이라 한다.¹⁰⁰⁾

원효에게서 보법은 일승만교에 판석된 가르침 곧 화엄경과 보현교를 그 범주로 한다. 여기에서 ‘보현교’가 가리키는 범위가 문제가 된다. 앞에서 보법을 ‘일승의 체득(見聞)’, ‘보현행의 완성, 성취’, ‘보현위(普賢位)의 증득’, ‘십지위(十地位)에 이르러서야 드러나는’ 등의 의미와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고, 이때 보법은 ‘보현행의 완성, 성취’, ‘일승보살도의 완성’이라는 보다 실천적인 견지에서 해석된다. 곧 보현행원은 보살의 자리와 이타 이념 실현에 대한 의지와 그것에 바탕한 갖가지 실천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개념으로서, 넓게는 대승보살도를 좁게는 화엄의 보살도를 대변하는 개념이다. 원효는 화엄경의 보살도만이 아니라 대승의 보살도를 폭넓게 끌어안는 개념으로서의 보현교를 부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¹⁾

2. 「광명각품소」의 해석적 특징

계송의 해석을 원효는 각 보살의 법문으로 나타냈다. 불호명과 부처의 법문도 구분하는데, 제1중에 대해서, “동방불호에 의해서, 부처의 부동상을 찬탄하고 뒤의 여덟 계송은 유수보살 법문이다”와 같은 설명을 계속하여 제10중에 이르면, “상방불호에 의해서, 伏怨智법문을 찬탄하며, 나머지 16송은 현수보살의 법문이다”로 끝을 맺는다. 이러한 계송 해석 방법을 통해 계송이 부처를 찬탄하는 법문과 보살 자신의 법문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부처의 법문을 찬탄하는 것은 보살들 각 처소의 부처의 명칭에 근거한다.

원효의 「광명각품」 해석상의 특징은 광명을 놓는 이유에 대한 해석에서 보듯이 지관쌍운의 실천적 측면을 기본에 두고 부처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데 있다고 보인다.¹⁰²⁾

또한 원효는 다른 경론을 인용하여 설명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신 『화엄경』 자체의 서사구조를 따라 자신의 독자적 해석을 간명하게 풀어내고 있다.¹⁰³⁾

100) 표원, 『華嚴經文義要決問答』 卷4

101) 석길암,

102) 김천학, 원효 「광명각품소」의 해석상의 특징, 『이화사학연구』 제51집,

103) 정희경, p.199

3. 영향

『화엄경소』가 당에 전해져서, 법장이 『탐현기』에서 인용하며 4교판의 내용이 소개한 이래 중국의 화엄가들이 주목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의 4교판은 중국과 일본에서 원효인용의 전형이 될 정도로 빈번히 소개¹⁰⁴⁾된다. 일본에서도 743년에 필사된 바가 있었으며 지경(智憬)이 지은 『대승기신론동이략집』에 원효소로 추정되는 내용이 최초로 인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원효를 화엄종의 승려라도 보는 시각이 있다. 고려시대 화엄을 대표하는 균여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이 확인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영섭, 『분항원효 불교사상사』, 운주사, 2024.
김두진, 『신라 화엄사상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22.
김상현, 『역사로 읽는 원효』, 고려원, 1994.
남동신, 『원효의 발견』,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논문

- 고영섭, 「분항 원효 저술의 서지학적 검토 - 敎判 認識과 學問 方法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 2권 2호, 한국불교사연구소, 2013.
김천학, 「원효 「광명각품소」의 해석상의 특징 : 동아시아 화엄사상의 관점에서」, 『이화사학연구』 제51집, 이화사학연구소, 2015.
석길암, 「원효의 보법(普法), 사상적 연원과 의미」, 『보조사상』 제32호, 보조사상연구원, 2009.
정희경, 「분항 원효 『화엄경소』의 내용과 특징」, 『불교철학』 제14집, 서울 : 동국대 세불연, 2024.

104) 이통현, 혜원, 징관 등